

홍와 이두훈의 포고천하문과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우진웅*

- I. 서언
- II. 홍와 이두훈의 학문과 포고천하문
 - 1. 가계와 학문
 - 2. 포고천하문
- III.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 1. 단연상채회 설립
 - 2. 의연금 모금 운동
 - 3. 의연금 모금 내역
- IV. 결언

국문초록

홍와 이두훈(1856-1918)은 고령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다. 그는 조선 말 극도로 혼란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식을 표현하였으며 민족 주권 회복과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본고는 문집의 행장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홍와 이두훈의 삶과 학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홍와 이두훈의 후손가에 전해지는 자료 중 1896년에 이두훈이 작성한 <포고천하문>에 대하여 분석하고, 1907년 국채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jwoong78@naver.com

보상운동 당시 고령지역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형성된 자료에 의거하여 고령 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포고천하문>은 면우 곽종석을 중심으로 영남 유럽 6명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등 일본의 만행을 서울 주재 각국 공관에 알리기 위해 1896년 2월에 발송한 것으로, 그 초안을 이두훈이 작성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으로 이두훈은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회장을 지냈다. 이두훈의 후손가에 전해지는 약 60여종의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는 2017년에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임명장, 국채보상운동 관련 시문과 광고가, 청원서, 수종의 의연금 명단 장부 등이 일괄로 남아 있어 국채보상운동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군민들의 참여와 전개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주제어

이두훈, 홍와, 포고천하문, 국채보상운동, 대구, 고령, 세계기록유산

I. 서언

李斗勳(弘篤, 1856-1918)은 李震相(寒洲, 1818-1886)의 대표적인 여덟 제자를 일컫는 ‘洲門八賢’의 한 명으로 고령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였다. 그는 조선말 혼란한 시대 상황과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이르자 영남의 여러 유림들과 일본에 대한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저항 의식을 보여주었으며 민족 주권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다. 학문적 업적을 제외한 그의 일생에 있어 대표적인 전력은 <布告天下文>의 작성과 국채보상운동 당시의 활동이다. <포고천하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등 국제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이 조선에 저지른 만행을 각국 공관에 알리며 규탄하는 내용으로 이 두훈이 초고를 작성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원을 갚아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으로 이두훈은 고령지역의 회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하였다. 당시 작성한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들은 100여년이 지난 근래에 대거 발견되었다.¹⁾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는 운동 초기의 상황과 고령지역에서의 활동 내역, 의연금의 관리 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국채보상운동의 과정과 독립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홍와 이두훈 후손가에 전해지는 자료 중 이두훈이 1896년 2월에 작성한 <포고천하문>에 대하여 분석하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당시 고령군 斷煙償債會²⁾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형성된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홍와 이두훈 후손가에서 전해지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다량일 뿐만 아니

1) <포고천하문>과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는 <2014년도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사업>(문화재청)에서 「홍와 이두훈 후손가」의 자료 정리 중 발견되었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여 지난 2017년에 선정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 62종이 포함되어 있다.

2) 국채보상은 남자들이 담배를 끊어 빚을 갚자는 의미로 ‘단연상채’라고 불리었다.

라 현전 국채보상운동 자료 중 드물게 한 지역의 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임명장, 국채보상운동 관련 시문과 廣告歌, 청원서, 여러 점의 의연금 장부 등이 일괄로 남아 있어 국채보상운동의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국민들의 참여와 전개 양상을 알 수 있다. 홍와 이두훈가에서 전해지는 국채보상운동 자료에 관해서는 <2014년 비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³⁾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종의 의연금 모금 상황과 내역이 기록된 장부 등에 대해서 원본 자료에 의거하여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포고천하문>의 경우 면우 곽중석을 주제로 한 연구⁴⁾ 등에서 이두훈이 여러 인물들과 함께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실물 자료가 발견되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II. 홍와 이두훈의 학문과 포고천하문

1. 가계와 학문

이두훈(1856-1918)의 호는 弘窩, 자는 大衡, 초명은 中勳으로도 불리었다. 성산이씨 시조 李能一로부터 31세이며, 시조로부터 14세인 李汝忠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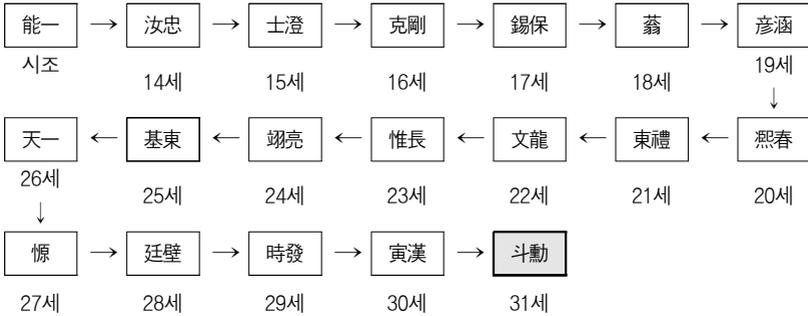
3) 문화재청,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학술용역보고서』(2014), 권대웅, 「고령군 단연상채회의 설립과 의연금 모집」, 『한국근현대사연구』 77(2016) 심상훈,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를 통해 본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성산이씨 홍와 고택」 자료로 본 국채보상운동의 단면」, 『동아인문학』 33(2015), 구본욱, 「고령지역의 국채보상운동-원본자료를 중심으로」, 『고령의 국채보상운동 학술세미나자료집』(2015)

4) 서동일, 「1896년 곽중석의 포고천하문 발송 경위」, 『남명학연구』 27, 2009.

5) 李汝忠: 1437년 문과 급제하여 인주목사를 지냈다. 이여충의 아들 松塢 李士澄은 성주에서 고령 관동마을로 이거하여 입향조가 되었으며, 삼남 이여량의 아들 李友는 진주 목사, 경기좌도수군첨절제사 등을 지냈으며 성주 한개마을로 이거하였다.

과조로 하는 인주공파의 후손이다. 이어충의 아들 李士澄(1418-1454)은 문과에 합격하여 사간원 헌납을 지냈으며 세 아들을 두었는데 홍와 이두훈은 둘째 아들 李文龍(1584-1655)의 후손이다. 이문룡은 병자호란 당시 창의하였으며 학문에 능하였다. 형인 죽포 이현룡(1580-1654), 아우인 매포 이택룡(1588-1620) 3형제는 도학과 학문을 즐기며 구휼을 실천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후손들에게 “조상을 잘 받들고 구휼에 힘써야 하고 친족 간에 화목을 이루어라”는 유지를 남겼다. 주위에서는 3형제를 ‘館洞三圃’라 하였다.

<홍와 이두훈 직계도>



이두훈은 이들 형제가 퇴계학과 남명학을 계승한 한강 정구(1543-1620)의 학문을 계승하여 한주 이진상(1818-188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특히 한주학파가 스승의 학설 때문에 위당으로 몰리고 스승의 문집이 상주에서 불타자 성균관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진력하였다.⁶⁾

이두훈은 1856년 李寅漢(1830-1882)과 광주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학문적 자질과 재능이 뛰어났다. 12세에는 고령 백일장에 참여, 장원을 차지해 고령현감이 불러 특별히 칭찬하였다고 한다. 1875년 20세가 되던 해,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한주 이진상에게 수학하기 시작했으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고향인 고령을 떠나 스승과 가까운

6) 심상훈, 앞의 논문, 345쪽.

성주로 유학하였다. 후에 한주의 제자 중 특별한 제자를 일컫는 ‘洲門八賢’⁷⁾의 한 명으로 고령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가 되었다. 그는 내산서당을 세워 후학양성에 매진하면서 학문을 연구하였다. 집안에서는 종계를 구성하여 결속을 다졌으며, 지역사회에서는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고 여러 계를 결성하는 등 고령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스승인 한주 이진상의 「理學綜要」, 「春秋集傳」의 간행에 참여하였고, 역사서인 「東華世紀」를 저술하였다. 1918년 향년 63세에 별세하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추모하였다. 1928년 문집이 발행되었고, 2015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문집의 행장에 기록된 행력을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적 능력이 뛰어났으나 벼슬에는 큰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시험에는 도전하였으나 그에게 있어 과거 시험은 평생을 괴롭힌 부끄러운 추억이었다. 1880년 4월, 25세의 이두훈은 초시를 치르기 위해 고령을 출발하여 긴 여정 끝에 서울에 도착하여 부족한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시험 당일 과장에 도착하여 시험 문제를 받고 마무리 할 무렵 누군가가 모친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하자 즉시 붓을 던지고 고령 집에 도착하여 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려 했으나 이미 운명하신 후였다. 그는 과거시험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마저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삼년상을 마친 후 그의 능력을 아가 위해 주변에서는 과거 응시를 계속 권하였으나 “과거 때문에 큰 죄를 지었는데 또 그 발걸음을 하겠는가?”라 하며 끝내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2년 뒤인 1882년에는 부친상을 당하였고, 1886년 한주선생마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시국도 극히 혼란하여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고 조선 침략을 모색하는 등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1895년 일본군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하였고 단발령까지 발표되자 전국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다.

고령지역을 대표하는 유림이었던 홍와 이두훈은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

7) 后山 許愈(1833-1904), 勿川 金鎮祐(1845-1908), 侁宇 郭鍾錫(1846-1919), 膠宇 尹胄夏(1846-1906), 紫東 李正模(1846-1875), 大溪 李承熙(1847-1916), 晦堂 張錫英(1851-1926), 弘窩 李斗勳(1856-1918)

하자 영남의 여러 학자들과 함께 <포고천하문>을 발의하여 일본에 대한 저항심을 표출하였다. <포고천하문>은 1896년 면우 곽종석 등 6명이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규탄하는 내용으로 이두훈이 초고를 작성한 2종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그는 1907년 일본에 진 국채 1,300만원을 갚기 위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에서 고령지역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작성한 많은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들이 전해지고 있다.

2. 포고천하문

1) 내용

<포고천하문>은 1896년 2월 7일 郭鍾錫(1846-1919)을 대표하여 姜龜相, 尹胄夏, 李承熙, 張完相, 李斗勳 등 영남유림들이 연명하여 명성황후 시해사건, 고종의 아관파천 등 일본의 만행이 비난받아 마땅함을 호소하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공사관으로 발송하여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고천하문>의 내용은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것이 천하의 떳떳한 이치다.”로 시작하여 군신의리라는 유교윤리를 국제정치의 보편적 논리로 제시하며 조선이 처한 위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자 했으며,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를 인간 본연의 차원에서 비판하여 일본에 대한 규탄의 정당성을 도덕적 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고유한 문화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문화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거론함으로써 일본의 선전과 달리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리고자 했다.

끝으로 일본의 침탈이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만약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천하만국이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며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게 되어 함께 역적의 당이 될 뿐

이니, 우리나라의 신민들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 맹세코 역적이 되어 역란의 천하로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며 끝까지 저항하는 의지를 표현했다.⁸⁾ 곽종석을 대표로 한 <포고천하문>의 발송에 대해 지역 유림은 개화에 아부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나 유럽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포고문을 발송했던 이유는 국권 상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저항 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⁹⁾ <포고천하문>을 발송함으로써 열강에 사실을 알려 천하에 의리를 밝히고, 동시에 당시 의병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모면시키고자 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2) 현전 자료 비교

<포고천하문>이라는 제목의 상소문은 몇몇 이본이 전해진다.¹⁰⁾ 그 중 먼 우 곽종석 등 6명이 발의한 포고천하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마이크로필름, 필사본)과 『羅巖隨錄』¹¹⁾에 발송주체 및 발송일자, 발송대상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¹²⁾ 홍와 이두훈의 후손가에는 2종의 포고천하문이 전해진다. 2종은 모두 홍와 이두훈의 글씨체와 일치하여 그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중 하나는 크기(세로×가로)가 28.5×140.0cm로 곳곳에 단어나 문장을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이하 수정본), 다른 하나는 24.4×120.0cm로 수정한 흔적 없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하 완성본)이다.

8) 서동일, 앞의 논문, 118-119쪽.

9) 서동일, 앞의 논문, 111-112쪽.

10) 곽종석 등 포고문(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마이크로필름, 필사본), 포고천하문(李正奎, 「창의건문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627-648쪽.) 포고천하문(朴周大, 『羅巖隨錄』, 국사편찬위원회, 1980, 428-430쪽.)

11) 羅巖隨錄: 朴周大(1836-1912)가 한말의 정황을 기록한 것, 고종의 즉위, 대원군의 집정, 병인양요, 진주민란, 임오군란, 동학, 갑오경장, 경술국치, 파리강화조약 등 중요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12) 서동일, 앞의 논문, 117쪽.



<그림 1> <포고천하본>의 수정본(좌)과 완성본(우)

수정본과 완성본을 비교해보면, 발의자 순서, 표기 수정, 문장 삭제 등에 있어 완성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정본은 발의자 명단에서 곽종석-강구상-윤주하-이승희-장완상-이두훈 순으로 연명되어 있다. 완성본은 곽종석-이승희-이두훈-윤주하-강구상-장완상 순으로 이승희가 2번째, 이두훈이 3번째 위치로 변화되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마이크로필름, 필사본) <포고천하문>의 발송주체는 곽종석-강구상-윤주하-이승희-장완상-이두훈으로 되어 있어 홍와 이두훈이 작성한 수정본과 발의자 순서가 동일하다. 일부 단어나 문장 표기를 수정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副國’을 ‘我國’, ‘我小邦’을 ‘我邦’으로 고쳤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수정본은 3행에 걸쳐 57자로 된 문장의 전체 내용을 먹으로 지웠는데,¹³⁾ 완성본은 이를 반영하여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포고천하문>의 말미에는 수신 대상을 수정본은 ‘丙申 12月 7日 右文告 我英法美德國公館’이라 하여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이라 명시하였으나 완성본에서는 국명을 기입하지 않고 ‘萬國公館’이라 하였다. 기타 불분명한자(寧, 凶, 雷)를 뚜렷하게 표기하기도 하였다.

13) 내용은 “어얼들이 권력을 다투고 서로 따진 것은 임금(乘輿)을 恐動(위험한 말로 겁주는 것)하고 다른 관사(殊館) 밖에 밀어내어 홀로 살게 한 것이니 마치 護駕(임금을 호위)하는 것처럼 하여 실로 위협하여 내쫓은 것이다. 上聽(성상의 귀)을 현혹시켜 멋대로 禁兵을 동원하여 일본이 의병을 찌르고 상케 하여 외적에 아첨하였다”는 것이다.

<포고천하문>을 이본 즉, 광종석 등 포고문(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마이크로필름, 필사본), 포고천하문(李正奎, 「창의견문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627-648쪽), 포고천하문(朴周大, 「니암수록」, 국사편찬위원회, 1980, 428-430쪽)과 비교해보면, 홍와 이두훈 후손가의 수정본에서 수정 표기된 부분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고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수정본과 완성본 <포고천하문>의 비교

	수정본	완성본
발의명단	郭鍾錫-姜龜相-尹胄夏-李承熙-張完相-李斗勳	郭鍾錫-李承熙-李斗勳-尹胄夏-姜龜相-張完相
표기수정	夫以君君臣臣	伏以君君臣臣
	是天萬國	是天下萬國
	鄙國	我國(2곳)
조사추가	我小邦	我邦(3곳)
	國人所必討	國人之所必討也
감탄사	天下逆臣	於天下之逆臣
	今天下萬國	噫今天下萬國
문장삭제	餘孽之爭權而相軌者 恐動乘輿摘寄殊館外若護駕而具實劫遷也 熒惑上聽擅發禁兵日刺椽義旅以納媚于外寇 日刺椽義旅以納媚于外寇	삭제

이두훈의 후손가에 전해지는 <포고천하문>이 최종 완성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두훈이 <포고천하문>의 초고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정한 것이 이본에서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문장 전체를 삭제한 부분은 이본 모두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수정본 <포고천하문>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단일 문서이다. 그렇지만 완성본 <포고천하문>의 실물을 확인해보면 피봉에 들어갈 수 있게 여러 겹으로 접혀져 있으며, 添言을 담은 別紙와 이를 넣은 皮封이 함께 갖추어져 있었다.

이 별지와 피봉에는 중요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피봉(그림 2)에는 “국형은 한가할 때 혼자 보거라(國衡閒中獨坼)”라 적혀 있다. 보통 피봉에는 수신자

밑에 ‘開塚’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지만 ‘獨塚’이라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은 개봉하지 말라”는 뜻으로, 중요한 문서였음이 짐작된다.



〈그림 2〉 〈포고천하문〉을 동봉한 별지(좌) 피봉(우)

피봉에 적힌 ‘國衡’은 李台勳(1869-1944)¹⁴⁾의 字이다. 이태훈은 홍와 이두훈의 종제, 즉 사촌 동생으로 부친은 홍와의 아버지 李寅漢의 아우 李寅模이다. 이태훈은 1906년 함경북도 관찰사주사 등 조정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태훈은 조정에 근무하면서 사촌형인 이두훈에게 많은 편지를 보내어 당시의 편지들도 많은 양이 전해진다.¹⁵⁾ 〈포고천하문〉과 함께 동봉된 별지(그림 2)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것은 〈포고문〉을 원본에서 베낀 것인데, 원래 편지 속 별지에 쓴 것이다. 만약 임금께서 보시면 〈포고문〉에 대해 하문하실 듯해서 보낸다. 만일 묻지 않으시면 전대 속에 깊이 간직해 놓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즉시 불태워 버려라. 대개 이런 것은 명예를 구하는 혐의가 있을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번거로이 부탁하니 대충 흘려듣지 말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
- 14) 이태훈: 성산이씨, 字는 國衡, 이진상, 광종석, 이종기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19년 3월에 전국유림들과 항쟁을 전개하려다가 1921년 4월에 탄로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6년형을 받고 복역하고, 이듬해 함흥으로 이감되어 구속되어 있는 선비들과 합방일을 국치일로 하여 단식 항쟁하였다. 병이 위중하여 1925년에 입시 출옥되었다가 1927년 진주감옥에 재수감되었다. 이후 출감하여 후학들에게 강론하였다.
- 15) 내용 중에는 조정에서의 여러 정황을 알렸는데, 임금이 면우 관련 기록을 요청한 것을 알리거나 「한주집」의 문제로 임금에게 불려나간 일을 전하기도 하였다.

하여라.¹⁶⁾

위의 기록으로 보아 <포고천하문>은 홍와 이두훈이 초고를 작성하여 수정까지 하였으며, 조정에 근무하고 있던 사촌 동생에게 보내어 임금께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편지가 이두훈의 후손가에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 것으로 보아 <포고천하문>을 만국공관으로 발송하는 것이 처음 취지에 맞지 않게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마음과 당시 반대파에 대해서도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두훈의 삶 중 <포고천하문> 작성에 관한 행력은 그의 사후 만장¹⁷⁾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어 <포고천하문>은 당대 지역 유림사회에 널리 알려진 중요한 향언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홍와 이두훈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Ⅲ.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1. 단연상채회 설립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 진 빚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이었다. 또한 민간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운동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차관을 제공하였는데

16) ‘此是布告文謄出者吾原書中胎錄若果上覽則似或垂問於布告文故送之如其不問深藏于囊中勿掛人眼或卽付丙也蓋此等恐有要名之嫌故如是煩托勿爲泛聽勿掛人眼也.’

17) ‘간절한 충정은 포고문에 보였다네.’(金奎瑗), ‘포고문으로 대의를 밝혔다네.’(寅梓), ‘포고문을 써서 팔도에 전하였다네.’(鄭敏錫), ‘포고문은 이복을 배척하였고 퇴계의 묘법으로 사림을 경계하였네.’(朴正浩), ‘대의는 포고문에서 밝혔다네.’(李憲昌), ‘간절한 충정은 포고문에 보였다네.’(金奎瑗)

1907년 액수가 1,300만원에 이르렀다. 이것은 당시 1년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대중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가의식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동시에 민족공동체 의식을 깨우치게 되었다.¹⁸⁾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문회 특별회에서 金光濟, 徐相敦 등의 발의로 비롯되었다. 김광제와 서상돈 등 발기인들은 국채 1,300만원은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되는 것으로 절감하였다. 그 결과 2천만 동포가 금연하여 모금한 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상환의 방법까지 제시하였는데, 2천만 인민들이 3개월간 금연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보았다.¹⁹⁾ 이 모임에서 광문사를 대동광문회라 바꾸고 금연을 통하여 국채를 갚아 나가자는 취지로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였다. 서상돈이 800원을 처음 내는 등 그 자리에서 2,000원이 모금되었다. 1907년 2월 21일 북후정에서 열린 민중대회 이후 대구민의회는 대구금연상채회 명의로 된 「통문」과 「금연상채회규칙」을 각 지역으로 발송하였다. 2월 22일 서울에서 國債報償期成會가 결성되었고, 곧이어 國債報償中央義務社가 설립되었다. 또 대구 남일동에서는 2월 23일 대구 남일동 物廢止婦人會가 조직되어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처로 확산된 열기는 국채보상을 위한 단연회, 의무회, 보상회, 동맹회 등의 단체 설립으로 나타났다.²⁰⁾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발기 취지를 밝혔다.

18) 심상훈, 앞의 논문, 342쪽.

19) 김상기, 「한말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이념」, 『충청문화연구』 10, 2013, 23쪽.

20) 권대웅, 앞의 논문, 58쪽.

“빚 1,300만원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나라의 돈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2천만 국민들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매달 20전씩 모아 그 대금으로 국고를 갚아 나라의 위기를 구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퍼지자 의연금 관리 기구가 필요하여 4월 8일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를 대한매일신보사에 설치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국채보상연합회의소라는 단체도 만들어졌다. 이 두 단체는 성격이 같고 두 단체로 나누어 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연합회의소는 지도하는 업무, 총합소는 의연금을 수합,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²¹⁾ 경북 지역에서도 의연금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경북에서는 대구단연회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慶北國債報償道總會를 구성하여 보상금과 단체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였다.²²⁾ 서울에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만들어지자 이 단체와 유기적인 연락을 위해 1907년 7월 경북 각군국채의무금수합소가 결성되었다. 수합소는 대구단연상채소와 함께 서울의 총합소를 연결하는 경북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도기관이 되었다.²³⁾

국채보상운동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이 점차 갖추어지자 고령지역에서는 홍와 이두훈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鄉中에서 결정하였다. 이두훈은 고령군 斷煙償債會社都會長으로 추대되어 고령지역 기금의 모금과 관리를 총괄하였다. 전해지는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는 국채보상운동 초기 상황과 고령지역에서의 활동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운동의 당위성을 알리며 이두훈을 고령지역의 대표로 요청한 문서, 지역민들의 의연내역을 기록한 장부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은반지를 내놓은 사실도 수록되어 있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21) 『대한매일신보』 1907. 5. 28.

22) 『대한매일신보』 1907. 7. 25.

23) 김희곤 외,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문경 : 문경문화원), 2009, 137-138쪽.

다음은 전해지는 자료에 근거하여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전개하였다.²⁴⁾

1907년 3월 2일(음력1. 8) 한주 이진상의 아들로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승희는 동료인 이두훈에게 “근래에 대구에서 시작된 단연상채회를 성주에서도 만들려고 하는데, 국민의 충분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고령에서도 혹시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으며,²⁵⁾ 3월 5일(음력1. 21) 고령 유생 南奎燮은 “단연회는 정녕 하늘의 뜻이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의연금을 내니 이 일이 심상한 무리들의 일은 아닌 듯하다.”라는 내용의 편지²⁶⁾를 보냈다. 고령지역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알고 유림사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3월 9일(음력1. 25)에는 鄉約會中 郭聖勳, 朴乙源, 李在煥, 金鳳熙, 鄭在寅, 崔洪錫, 金永澤 등이 이두훈에게 고령군 斷煙償債會社都會長을 청하는 돈청문²⁷⁾을 보냈다.

1907년 3월 13일(음력1. 29) 고령군에서는 단연상채회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회가 개최되었다. 발기인은 고령향교 향약회 회원 진참봉 李奎紳, 李寅梓, 李相羲 등이며, 이들은 고령군단연상채회의 취지를 해석하는 연설을 하였다. 단연상채회가 발기되고 설립된 후 발기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1,000여원의 의연금을 출연하였다.²⁸⁾ 3월 20일(음력2. 7)에는 대구단연상채회의 회장 李玄澍, 부회장 鄭在學, 총무 鄭圭鈺, 재무 徐相燾, 金炳淳 등이 고령군 단연상채회 회장(이두훈)에게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담은 통문, 금연상채회 규칙 등을 함께 보냈다.²⁹⁾ 국채보상보상운동 전국본부(국채의무회)에서는 각 군 단연상채회의 임원, 임원 수, 역할 등을 담은 규칙과 의연금 영수증 서식 등을 정하여 보내었다. 제1조 ‘회임’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재무 2명, 평의장 1명, 평의원 10명, 서기 2명, 사찰 5명 등으로 정하였으며

24) 본문에 적힌 날짜는 양력, 각주의 날짜는 문서 그대로 표기하였다.

25) 李承熙 간찰(1907년 정월 18일, 24.7×40.0cm)

26) 南奎燮 간찰(1907년 1월 21일, 24.0×39.8cm)

27) 敦請文(1907년 원월 25일, 51.5×52.5cm)

28) 권대웅, 앞의 논문, 61쪽.

29) 李玄澍 등 간찰(통문과 규칙은 활자 인출본임)

제2조는 ‘회무’, 제3조는 ‘회규’로 끝에 의연금 영수증의 양식과 인장의 규격(영수증식)을 기록하고 있다.³⁰⁾

2. 의연금 모금 운동

이두훈은 의연금 모금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 고령군단연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국채보상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는 “나라가 혼란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방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군민 모두가 일어나 구국의 대열에 함께 나서자”라는 내용이 수록된 장문의 召募文을 작성하여³¹⁾ 지역민들에게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였다.

3월 22일(음력2. 9) 고령군 벌지면 벌지동에 사는 朴士元 등 21명은 總代에게 “집안이 가난하여 의연금 모금에 어려움이 많으니 이 점을 각별하게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³²⁾ 3월 23일(음력2. 10)에는 고령군의 총대 鄭在萬이 단연회장 이두훈에게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자신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므로 총대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³³⁾ 같은 날 이승희는 “고령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고 자신도 계속해서 성주지역에서 역할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대구의 상황을 보고 본인도 임무를 수락할지 말지를 정할 것”이라고 하였다.³⁴⁾ 3월 29일(음력2. 16) 李鐘岳은 “단연회를 조직한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마을의 인심을 살피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과 사족들의 시기와 관망만 하는 아전들이 원망만 하고 있어 얼마 되지 않아 이 운동이 철회될 것 같다”는 내용³⁵⁾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우려의 편지를

30) 국채의무회 규약(21.5×87.3cm)

31) 李斗勳 召募文(22.3×50.0cm)

32) 朴士元 등 간찰(1907년 2월 9일, 56.5×29.5cm)

33) 鄭在萬 간찰(1907년 2월 10일, 26.2×24.2cm)

34) 李承熙 간찰(1907년 2월 10일, 22.0×32.0cm)

보내 국채보상운동이 진행 과정 중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4월 3일(음력2. 21) 총무 李澤魯와 재무 徐誠淳이 회장에게 보낸 보고서 1호에는 “다산면의 총대인 金性濟가 지난 날 償債義務를 설명하였고 본 면에 흥년이 들었으나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연하신 분들을 기록하여 정책으로 만들어 보낸다.”고 하였으며, 함께 보낸 보고서 2호에는 “본 면의 12동이 흥년이 들어 의연금을 내기 어려워 注乙池 한 곳 등을 매각하여 1,700냥을 받아 납부하겠다.”³⁶⁾고 보고하여 흥년으로 인해 상황도 불구하고 공동 재산을 팔아서라도 운동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다.

1907년 4월 14일 고령군에서는 불법 징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의연금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4월 15일(음력3. 3)에 李邦桓³⁷⁾은 이두훈에게 편지를 보내 “중의에 따라 고령군 단연회장을 담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우리 백성 일부의 의로운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한 목소리로 義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며 자신도 5緡을 내었다”고 하였으며,³⁸⁾ 4월 19일(음력3. 7)에는 고령군 의무소에서 각 면에 통지서 형식의 윤고문을 보내어 “국채보상의 의무는 심히 긴요한 일이나 근래에 읍내의 소요로 인해 부득이 정지되었는데 이 운동을 다시 미룰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각 면의 임원들이 모여 상의하자”고 하였다.³⁹⁾

4월 20일(음력3. 8) 면우 곽중석(1846-1919)은 “민들의 소요가 놀랄 만하며 국채를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어찌 하루라도 편히 살겠는가?”라며 이두훈에게 편지를 보냈으며,⁴⁰⁾ 4월 27일(음력3. 15)에는 총무장 朴景洵이 “고령군 단연상채회에 보낸 편지에서 읍저의 소란으로 단연 의연금이 중지되었으나 이제는 다시 각 면에서 의연금이 모이도록 노력하자”⁴¹⁾ 당부하였다.

35) 李鍾岳 간찰(1907년 2월 16일, 24.5×26.3cm)

36) 李澤魯 등 보고서1(1907년 2월 21일, 29.0×27.0cm), 보고서2(27.0×3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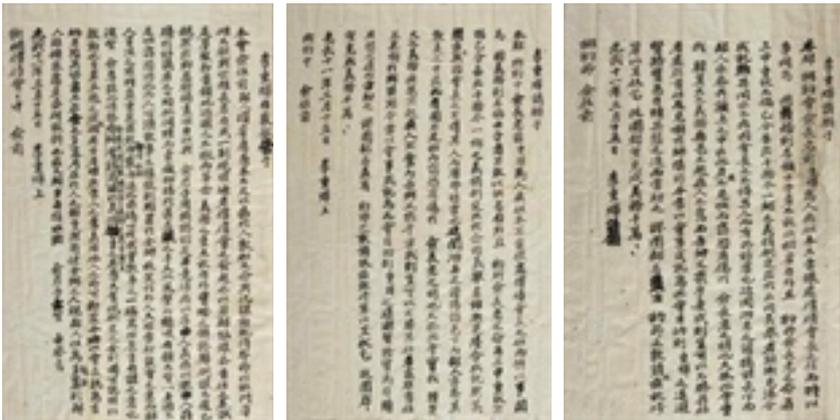
37) 李邦桓(1880-1935) : 자 惟中, 호 晦山, 본관 성산, 홍와 이두훈에 학문을 배웠다.

38) 李邦桓 간찰(1907년 3월 3일, 24.7×28.3cm)

39) 斷煙國債報償會 輪告文(1907년 3월 7일, 24.0×30.0cm)

40) 郭鍾錫 간찰(1907년 3월 8일, 25.0×23.5cm)

이러한 논란과 군민들의 소요 속에서 홍와 이두훈은 고령군 단연상채회 회장직의 사퇴를 결심하고 향약회중에 올리는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4월 27일(음력3. 15) 李重燁이 올린 청원서⁴²⁾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회장의 직책을 맡았으나 이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고 또 향약소의 여러 어른들께서 계속해서 회장직을 부탁했으므로 그 뜻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성취한 일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辭單(사직 단자)을 제출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림 3> 이중엽(이두훈)이 올린 사직 청원서 초고 3종

41) 朴景洵 간찰(1907년 3월 15일, 25.0×19.0cm)

42) 李重燁 청원서(1907년 3월 15일, 39×30.7cm, 40.2×30.7cm, 40.3×29.8cm), 이 청원서의 작성 주체는 ‘이중엽’으로 되어 있다. 3점 모두 동일한 내용이며, 일부 수정 흔적이 있다. 이 청원서를 쓴 ‘이중엽’은 이두훈 친필의 간찰 등 다른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서체가 일치하고, 앞에서 언급한 3월 9일 이두훈이 고령군 단연상채회 회장 단청문을 받고 4월 27일 본 청원서를 작성했다는 점, 청원서 초고 3종이 집안에 전해진다는 점, 전해지는 고문서 중 이중엽이 찬한 <高靈郡民約會序>라는 글의 서체도 이두훈의 서체와 같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중엽’은 이두훈의 또 다른 이름일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서 3종은 조사 과정 중 새로 발견되었다.

이두훈이 고령군단연상채 회장의 직무를 언제까지 수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907년 5월 31일(음력4. 20)에 국채보상연합회의소장 李儁 등이 보낸 편지에는 수신인이 ‘고령군의무소장 이두훈’, 6월 20일(음력5. 10)에 작성한 첩정에는 ‘고령군 국채보상의무소 회장 이중엽’, 9월 21일(음력8. 14)에 사립우신학교에서 보낸 편지에는 수신인이 ‘전 단연회장 이두훈’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이듬해 1908년 2월 작성한 『高靈郡斷煙義務會勘簿錄』에서는 ‘회장 이중엽’으로 되어 있어 1907년 4월 말 사직청원서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후에도 회장직을 맡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국채보상운동이 진행되는 중 1907년 5월 5일(음력3. 23)에는 고령군단연상채회 부회장 李鳳朝가 金明俊을 단연상채회 재무원으로 추천하면서 망기를 보냈으나 김명준은 “바쁜 업무 관계로 추천해주신 직을 사양한다”는 청원서를 보냈다.⁴³⁾ 1907년 5월 8일(음력3. 26) 南廷瑀(1869-1947)는 홍와 이두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연상채는 실로 나라의 대의로 장차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義를 망각하는 습속이 이미 오래 되었는데 천만인의 마음을 모두 돌릴 수 없는 것이며, 두려운 것은 끝내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강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라 하며 걱정하기도 하였다.⁴⁴⁾

5월 11일(음력3. 29)에는 상동면 곡어리 이장이 “국채보상운동에 필요한 의연금 9냥 1전을 냈다”는 내용의 첩보⁴⁵⁾를 보냈으며, 5월 31일(음력4. 20)에는 국채보상연합회의소장 李儁, 부소장 金光濟, 총무 金達河가 고령향교 단연상채회에 “고령군에서 의연금을 낸 사람과 금액을 상세히 기록하여 성책을 만들어 알려 달라”고 하였다. 또한 별지 중 취지서에는 “일본에게 해방될 길은 나라의 빛을 갚는 방법 밖에 없으니 금연과 절주로 빛을 갚자고 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의 규모가 크고 방법 등이 다양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고 하였다. 발기인으로는 경북의 李南九, 李達源 등

43) 단연상채회 망기와 청원서

44) 南廷瑀 간찰(1907년 3월 26일, 21.2×64.0cm)

45) 단연상채회 첩보(1907년 3월 29일, 23.5×33.5cm)

13개도의 각 2명씩 36명,⁴⁶⁾ 임시사무소는 한성 磚洞 普成館으로 되어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이후 전국적으로 모은 의연금의 관리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열기가 점차 식어졌고, 일본의 방해도 노골화되면서 점차 어려워지게 되자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07년 7월(음력 6월)에는 경북 상주에 사는 鄭在憲⁴⁷⁾이 작성한 ‘敬告我全國同胞(전국의 동포들에게 삼가 아뢰다)’라는 제목의 통문에는 “서상돈과 김광제가 애초 주장했던 국채보상운동이 지지부연하게 전개되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였다.⁴⁸⁾

이 통문은 각처의 국채보상운동 단체로 배포되어 대구금연상채회 임원들의 의연금 전용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어 정재덕의 경고문에 관해 대한매일신보가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켰다. 정재덕은 경고문을 통해 대구단연회는 의무의 긴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자가 붙어나는 것만을 일삼아 재무를 담당한 사람이 많은 돈을 분담해서 이자를 계산해 돈을 유통시킨다고 비난하였다.⁴⁹⁾ 9월 21일(음력8. 14) 고령 사립우신학교 교장 이봉조李鳳朝, 교감 徐丙根, 학감 俞鳳華는 “단연상채회가 관리하고 있던 의연금을 학교를 세울 자금으로 쓰기로 하였으니 영수증과 함께 본교로 보내달라”는 편지를 전 단연회장 이두훈에게 보냈다.⁵⁰⁾ 1907년 12월 8일(음력11. 4) 朴鳳烈은 “우리 면에서 모은 단연금 56원을 돌려주면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도록 처리하겠으니 출금해 주기 바라며 우리 면의 의연금을 보내 줄 수 없다면 본인 이름으로 낸 10원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다.”고 하여⁵¹⁾ 국채보상운동의 말기 처음 취지와는 다

46) 경기도(朴喜明, 洪璇杓), 충청남도(尹履炳, 趙載明), 충청북도(李玩求, 黃柱顯), 전라남도(曹明承, 申耕植), 전라북도(鄭惺愚, 姜燁), 경상남도(盧相旭, 安宅重), 경상북도(李南九, 李達源), 평안남도(韓景烈, 李侃), 평안북도(金遠河, 朴聖欽), 함경남도(朱堦, 張鳳周), 함경북도(金澁炳, 吳相奎), 황해도(申庸均, 金顯九), 강원도(鄭鎬德, 李寅夏)

47) 鄭在憲(1867-1911): 상주 출신으로 내부주사, 태릉참봉, 통정대부가 되었다. 국채보상운동 발기인이었으며, 1908년 상주에서 광흥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48) 鄭在憲 통문(1907년 6월, 24.0×3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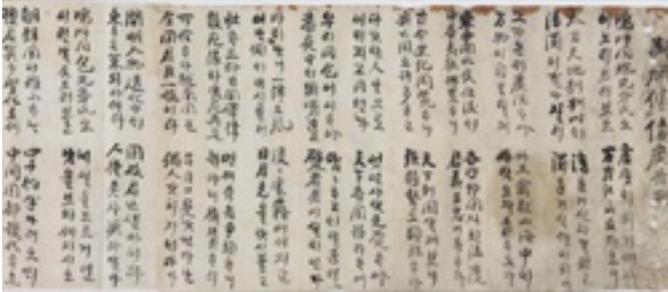
49) 권대웅, 앞의 논문, 74쪽

50) 李鳳朝 등 간찰(1909년 8월 14일, 24.0×16.2cm)

51) 1907년 朴鳳烈 간찰, 1907년 11월 4일, 21.0×73.0cm)

르게 전개된 상황을 볼 수 있다.

전해지는 자료 중에는 국채보상운동의 초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광고가 있어 주목된다. 1907년 3월에 작성한 <斷煙償債廣告歌>는 국채보상운동의 취지와 모금이 필요한 이유 등을 1,485자의 국한문 혼용으로 지은 가사이다.⁵²⁾



<그림 4> 단연상채광고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오랜 역사, 지리적 배경과 주변의 강국 안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부끄럽지 않은 민족의 역사와 업적을 수록하였고,⁵³⁾ 이후 나라 빛을 갚기 위해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당위성과 無知乞人, 皮漢 등 남녀노소 모두 의연에 동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수록하였다.⁵⁴⁾ 또한 광고가의 후반부에는 “우리도 품삯 받아 단

52) 斷煙償債廣告歌(1907년 2월, 18.5×154.0cm)

53) 오호! 동포형제들이여 이 노래 들어 보소. 허공에 비켜서서 만방강산 돌아보니. 태고 천지 나눌 적에 淸濁이 갈라질 때. 청한 것은 하늘 되고 탁한 것은 땅이 되니. 그 가운데 광원하여 만물이 자생할 제. 초목금수 산해 중에 사람 오직 귀하다. 동서남북 정위 후에 中華夷獸 배치하니. 각주방국 지킨 법도 군의신중 거룩하다. 고급사기 열람하니 흥망국도 허다하고. 천하열국 살펴보니 강약세도 현수하다.

54) 일원이원백원으로 천만원 을 출의로다. 연설하고 광고하니 三百九州 일심으로. 남녀노소 상하 없이 누구 아니 질거 하리. 대구 역중 부녀들은 回項(목도리) 月子(가짜로 땀은 머리) 벗어놓고. 指環佩物 있는 대로 열심으로 보조로다. 無知乞人 皮漢 등도 수십금을 보조터라. 장하고 놀랍도다 千萬古에 있을 손나. 남자도 장커니와 부인 마

연회 도와주세, 주색잡기하는 놈은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등 나라 빛을 갠기 위한 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였고,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다른 이에게 널리 퍼뜨리고 전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후에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⁵⁵⁾ 이 광고가를 쓴 인물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당시 국채보상운동의 의연금 모금 양상, 즉 월자(月子, 머리술이 많아 보이게 땅아 넣었던 머리), 패물 등 가장 소중한 물건까지도 내어 운동에 동참한 여성들의 모습과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참여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광고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이다.

3. 의연금 모금 내역

여기서는 홍와 이두훈 후손가에 전해지는 자료 중 국채보상운동 관련 6종의 장부에 대해 소개하고, 의연금 모금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斷煙償債會義捐金錄 第一-56)

1907년 고령 단연상채회 회장 李重燁, 부회장 李鳳朝, 전참봉 李奎紳, 金德俊 등 고령지역 유림을 중심으로 수록된 의연금록이다. 표지 서명은 ‘斷煙償債會義捐金錄’이며, 표지에 의연금을 낸 지역(館洞, 下於桃蓮, 安井, 內谷, 加縣, 伐知, 一良, 邑內, 下洞, 高谷, 仁谷, 松泉, 九谷, 九音, 云羅, 畚谷, 上洞, 鑰泉)이 표기되어 있다.

본문의 내제는 ‘丁未正月二十九日 斷煙償債會義捐金錄’이다. 전체 34장 분

음 더욱 장다. 보조금도 하려니와 단연이 더욱 좋소. 오호 동포형제들이 부디부디 단연하소. 이천만 우리 동포 일심으로 단연하면. 비단 報債 뿐만 아니라 조은 말씀 다할손나.

55) 우리도 雇貰(품삿) 받아 단연회 보조하세. 주색잡기 하는 놈은 만 번 죽어 아깝지 않다. 이 노래 보시거든 많이 써서 광고하소. 不書不傳 하면은 하늘 재앙 받으리라.

56) 斷煙償債會義捐金錄(23.5×15.0cm)

량으로 받은 날짜순으로 의연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첫 날인 3월 13일(음력1. 29)에는 회장 李重燁(10원), 부회장 李鳳朝(10원), 전 參奉 李奎紳(50원), 전 參奉 金德俊(10원), 전 都事 李鳳九(1원), 전 五衛將 金燾國, 通政 李漢英 등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의연금 모금 초기에는 고령 단연상채회 임원들과 관료를 지냈던 주요 인물들이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관료출신 인물들이 간혹 표기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일반 군민이다.



<그림 5> 단연상채회의연금록(제1)의 표지, 권수 부분

이 책에 수록된 날짜는 3월 13일(음력1. 29)부터 4월 1일(음력2. 19)까지이며, 날짜별 내역은 3월 13일(음력 1.29) 83명, 14일 8명, 17일 12명, 18일 27명, 19일 3명, 21일에 75명이 의연하였다. 이어 3월 24일 75명, 26일 2명, 28일 77명, 29일 67명, 30일 59명, 4월 1일에 11명으로 의연한 사람은 총 478명이었다. 마지막에는 합 525원 88전과 60원이 추가로 들어와 전체 합이 585원 88전이며, 이 중 74원을 상무소에 제출하여 실제 511원 88전⁵⁷⁾이 있다고 하였다.

〈표 2〉 『단연상채회의연금록』 제1에 수록된 날짜별 의연 내역

시기	의연 명단
3월 13일(음력1. 29)	會長 李重燁 10원, 副會長 李鳳朝 10원 등 83명
3월 14일(음력2. 1)	邑池洞 金永熙 2원 등 8명
3월 17일(음력2. 4)	4일 下洞梅 吳應轍 등 12명
3월 18일(음력2. 5)	5일 高谷龍 進 參奉 俞悌濬 등 27명
3월 19일(음력2. 6)	6일 다산 徐誠淳 등 3명
3월 21일(음력2. 8)	8일 송천 裴錫均 등 75명
3월 24일(음력2. 11)	11일 가현면 龍塘 朴載善 등 64명
3월 26일(음력2. 13)	13일 관동 尹永祚 등 2명
3월 28일(음력2. 15)	15일 운라 金興榮 등 77명
3월 29일(음력2. 16)	16일 하며 도진 朴升烈 등 67명
3월 30일(음력2. 17)	17일 일량면 總代 鄭昌河 등 59명
4월 1일(음력2. 19)	19일 관동 李滢 등 11명

2) 斷煙償債會義捐金錄 第二⁵⁸⁾

표지서명은 ‘단연상채회의연금록’이며, 내제는 ‘정미이월십구일 단연상채회의연금록’이다. 전체 19장 분량 분량으로 표지에는 서명과 함께 의연금을 받은 지역 관동, 운하 읍내 가현, 다산이 표기되어 있다. 앞의 의연금록(제1)을 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4월 1일(음력2. 19)부터 5월 6일(음력3. 24)까지 수록되어 있다. 의연금을 낸 자는 모두 277명이다.⁵⁹⁾ 이 책에는 술집 상인(酒商)으로 보이는 ‘陳甲述 20전’, ‘鄭振汝 20전’, ‘針工 妻 金氏 20전’과 같이 여성들의 참여 내역이 있으며, 일부 의연자의 경우 직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20전을 낸 崔召史는 직업 표기에 걸인을 일컫는 ‘丐乞’이라 표기되어 있어 주목이 된다. 이는 걸인이라는 최하위층에서도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어

57) 已上 金 伍百伍拾玖元 捌拾捌錢, 銀換 壹隻 再合 伍百伍拾貳元 捌拾捌錢 又 六十元 追來 合 五百八十五元 八十八錢 七十四元 常務所 除出 實 五百十一元 八十八錢

58) 斷煙償債會義捐金錄(26.0×17.0cm)

59) 정미 2월 19일 館洞只 尹鳳祐 1냥, 白永守 2냥, 金永壽, 鄭基善 1냥 등 53명, 4월 28일(음력3. 16) 가현 박곡 白致玉 등 4명, 5월 5일(음력3. 23) 진촌 옥동 金世益 등 4명, 5월 6일(음력3. 24) 上谷 李根德 등 216명.

운동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려고 했던 중요한 실물 증거 기록이다. 책의 끝에 수록된 의연금의 도합은 합 308원 87전 중 1원을 상무소에 제출하여 실제로는 307원 87전이 있다고 하였다.⁶⁰⁾



<그림 6> 단연상채회의연금록(제2)의 표지, 결인 표기 부분

3) 國債報償會 義捐金錄⁶¹⁾

앞의 『단연상채회의연금록』 ‘제1’과 ‘제2’를 간단하게 요약한 장부이다. 표지 서명은 없으며 내제를 ‘경북 고령군 국채보상회 의연금록’이라 하여 고령군 국채보상운동의 의연금을 낸 자의 성명과 의연금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총 1,213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⁶²⁾

60) 已上 合 三百八元 八十七錢 一元 常務所 除出 實 三百七元 八十七錢

61) 慶北 高靈郡 國債報償會義捐金錄(26.5×16.8cm)

62) 앞의 『단연상채회의연금록』 ‘제1’(478명)과 ‘제2’의 명단(277명)을 합하면 755명이 된다. 여기에 수록된 전체 1,213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단연상채회의연금록』이 더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4) 高靈郡斷煙會 義捐金 捧上日記冊⁶³⁾

표지에는 ‘고령군단연회 의연금 봉상일기책’과 ‘高靈郡斷煙報償會章’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으며, 정미 정월 29일이 기록되어 있다. 1907년 3월 13일(음력1. 29)부터 6-7월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의연금 내역, 의연금을 낸 자의 거주지 및 성명 등을 기록하였다.

3월 13일(음력1. 29)에 처음으로 읍내에 거주하던 鄭氏 성을 가진 부인이 은반지 1쌍을 쾌척하였다. 2월(음력)에 모두 20명이 의연금을 내었다. 고령이 아닌 대구에 사는 裴尙璞이라는 자가 5냥을 낸 기록, 구곡 개포에 사는 朴夫人과 具夫人이 각각 은반지를 내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5) 高靈郡 斷煙義務會 勘簿錄⁶⁴⁾

‘고령군단연의무회감부록’이라는 제목으로 고령 단연상채회 의연금의 보관(임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내제는 ‘丁未 12月 25日 高靈郡 斷煙義務會 義捐金 各面任置錄’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 ‘한 건은 郡署, 한 건은 會所, 한 건은 鄉中’이라 기록되어 3부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령군 단연상채회는 1907년 12월부터 의연금의 모집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출연된 의연금은 각 면별로 면장 책임 하에 의연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성책에는 각 면의 임치금과 임치인의 성명, 면장의 성명을 기록하였다.⁶⁵⁾

63) 高靈郡 斷煙會 義捐金 捧上日記冊(18.5×154.0cm), 앞의 『단연상채회의연금록 1-2』와 의연 내역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본 장부를 정리하여 『단연상채회의연금록 1-2』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4) 高靈郡斷煙義務會勘簿錄(19.5×26.8cm)

65) 덕곡면 36원 7전(임치인 李鳳宇·崔永胤, 면장 俞致永), 인곡면 68원 89전(임치인 金明湖, 면장 章志漢), 흑수면 40원(임치인 金致華·申順才·林致雲·金大仲·金淑汝, 면장 鄭在駿), 소야면 248원 38전(임치인 金永澤 등 5명, 면장 金洪奎, 이장 朴基元), 가현면 36원 19전(임치인 朴弼根, 면장 朴載善), 벌지면 86원 80전(임치인 金錫熙·奇龍昊, 면장 金炳熙), 다산면 79원 50전(임치인 李鶴魯, 면장 鄭), 구음면 45원 35전(임치인 金載文, 면장 俞章魯), 구곡면 40원 10전(임치인 權鍾漢, 면장 金燁國), 진촌면 25원 20전(임치인 金燦東, 면장 金季澤), 담곡면 60원 75전(임치인 尹永燦, 면장 郭東坤), 왕지면 61원 52전(임치인 洪應燮, 면장 孫尙鉉), 하며면 48원 6전,

책의 끝에는 “임치금 1,195원, 미봉금 245원 45전, 미봉 이자 24원 52전과 3전을 합한 금액이 1,464원 97전을 26개 면에 임치한다.”라는 기록과 會長 李重燁, 副會長 李鳳朝, 評議長 金鳳熙, 總務長 朴景洵, 財務長 李奎紳 등 임원의 성명이 있다. 추가로 기록된 ‘본회전후 회계’에는 3월 13일(음력1. 25)에 본회가 시작되어 6월 20일(음력5. 10) 첫 회계에 “1907년 2월(음력)에 1,195원을 26개의 각 면에서 거두어 들였으며, 그 중 62원 59전은 회소를 세울 때 잡비와 임원의 식비로 쓰여 실제 의연금 1,132원 41전을 회소 임원이 유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⁶⁾ 8월 23일(음력7. 15) 회계에는 “유치금은 지난 5월(음력) 유치한 1,132원 41전이 있다. 향원 회의 시에는 이자를 사용했으며, 회장, 부회장, 재무장이 담당하여 分放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⁷⁾ 1908년 1월 28일(음력12. 25) 회계에는 유치금 1,132원 41전, 5달의 이자 113원 24전을 합하여 1,245원 65전을 유치하였으며, 그 중 1,195원은 26개면에 나누어 임치하고 나머지는 庫子(고지기)의 수고비 지출(7원), 평의장의 비용(3원), 총무장 박경순이 지방 위원의 일로 대구에 왕래할 때 비용으로 부회장이 지급(10원), 소학서숙의 잡비(10원), 회의 시 술과 고기값(5원), 회의 시 식비(3원)으로 지출했으며, 잔금 11원 71전 중 1원 30전은 회장, 9원 41전은 부회장, 1원은 총무장이 유치하고 있다고 상세하게 기록하였다.⁶⁸⁾ 별록에는 지회인 고령군 商務社의 右社가 금 544원, 엽전 60

우촌면 19원 48전(임치인 金秉運, 면장 朴泰廷), 일량면 20원(임치인 洪永杓, 면장 金燾斗), 안림면 17원 16전(임치인 卞奇五, 면장 郭鎮弼), 유천면 22원 50전(임치인 石應千, 면장 崔洪錫), 하동면 70원 68전(임치인 吳仁相, 면장 金庸誠), 상동면 58원 67전(임치인 朴鳳烈, 면장 金季澤), 고곡면 50원 46전(임치인 朴昌淵, 면장 金漲培), 도장면 36원 40전(임치인 李啓鶴 등 3명, 면장 崔翊東), 내곡면 92원 70전(임치인 李圭紳, 면장 李憲正), 관동면 40원 81전(임치인 金甲鳳, 면장 李寅協), 운라면 14원 9전(임치인 金興榮, 면장 梁益善), 송천면 88원 55전(임치인 李泳一, 면장 朴根煥), 읍내면 58원 66원(임치인 朴璋夏, 면장 鄭昌河)

66) 5월 5日 會計: 1132원 41전(自二月至同月日各面收捧來), 62원 59전(會所設施雜費及任員諸人四五朔留連往來食費用除), 實在金 1132원 42전 會所任員諸人處 留置.

67) 7월 15日 會計: 1132원 41전(去五月日留置來), 鄉員會議以貳利殖放, 會長副會長財務長擔任分放.

68) 12월 25日 會計: 1132원 42전(去七月日留置來), 113원 24전(同金五朔利子來), 合

냥, 左社가 출연한 43원 10전 등이 기록되었다.



<그림 7> 『단연의무회 감부록』

6) 斷煙會 各面 男口調査 成冊⁶⁹⁾

고령단연상채회에서 각 면의 남자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다. 표지 제목은 ‘단연회 각면 남구조사 성책 丁未 二月’로 되어 있으며 총 12장이다. 책에 수록된 고령군의 남성 인구의 합은 15,691명⁷⁰⁾으로 덕곡면, 인곡면, 흑수면 순으로 각 리, 동의 남자 인구를 기록하였다. 국채보상운동 활동 초반에 각 마을별로 국채보상 의연금을 분배하기 위해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金 1245원 65전 內 1195원 26面 還分給任置, 7원 會所 庫子 酬勞處下給, 3원 平議 長 用下級, 10원 朴景洵以地方委員事達府往來之費衣官教鄉議除給副會長, 10원 自會長處移居副會長用於邑小學書塾雜肥此入于官, 5원 80전 同會日酒肉價, 3원 14전 同會時鄉員食價庫子下, 餘金 11원 71전, 1원 30전 在會長, 9원 41전 在副會長, 1원 在總務長.

69) 斷煙會 各面 男口調査 成冊(16.0×26.5cm)

70) 덕곡면(929명), 인곡면(653명), 흑수면(497명), 소야면(579명), 가현면(536명), 벌지면(833명), 다산면(852명), 구음면(481명), 구곡면(674명), 진촌면(448명), 답곡면(544명), 왕지면(349명), 하며면(787명), 우촌면(441명), 안립면(347명), 유천면(218명), 하동면(907명), 상동면(612명), 고곡면(680명), 도장면(248명), 내곡면(420명), 관동면(345명), 운라면(394명), 읍내면(1,522명), 송천면(872명)

IV. 결론

홍와 이두훈은 고령지역을 대표하던 뛰어난 유학자였다. 그는 학문적 업적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이르자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을 표출하였으며, 국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홍와 이두훈 후손가에 전해지는 자료 중에는 이두훈의 학문적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뿐만 아니라 <포고천하문>과 약 60여종 이상의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자료 중 <포고천하문>에 대하여 분석하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이두훈이 고령지역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형성된 자료에 의거하여 고령지역 국채보상 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포고천하문>은 먼우 곽중석을 중심으로 영남 유럽 6명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등 일본의 만행을 서울 주재 각국 공관에 알리기 위해 1896년 2월에 발송한 것으로, 이두훈이 작성한 수정본과 완성본 등 2종이 전해지고 있다. 2종의 소장본을 대조해보면, 수정본에서 삭제된 부분이 완성본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또한 <포고천하문>의 이본과 비교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정본에서 고쳐진 부분이 대부분 이본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문장을 삭제한 부분까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두훈이 초고를 작성하여 수정까지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완성본 <포고천하문>과 함께 동봉된 문서를 통하여 당시 조정에 근무하던 사촌 동생에게 <포고천하문>을 보내어 임금에게 보이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해지는 자료들은 현전 국채보상운동 자료 중 드물게 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양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일괄로 남아 있어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한문혼용으로 쓰여진 「단연상채광고가」는 작자가 누구인지 불명확

하지만 당시 국채보상운동의 의연금 모금 양상, 즉 목도리나 月子, 패물 반지 등 소중한 개인 재산까지도 국가를 위해 내놓는 여성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으며,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참여한 국채보상운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의연금 내역이 수록된 의연금록에는 고령군민들의 참여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의연금을 낸 명단에는 걸인을 나타내는 ‘丐乞’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최하위층에서도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기록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구본옥, “고령지역의 국채보상운동-원본자료를 중심으로”, 「고령의 국채보상운동학술세미나자료집」, 2015.
- 권대웅, “고령군 단연상채회의 설립과 의연금 모집”, 「한국근현대사연구」, 77, 2016.
- 김상기, “한말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이념”, 「충청문화연구」, 10, 2013.
- 문화재청, 2014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학술용역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14.
- 서동일, “1896년 곽종석의 포고천하문 발송 경위”, 「남명학연구」, 27, 2009.
- 심상훈,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를 통해 본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 「성산이씨 홍와고택」 자료로 본 국채보상운동의 단면”, 「동아인문학」 33, 2015.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I」, 안동: 경상북도, 2012.
- 이세동, “홍와 이두훈의 삶과 학문”,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2008.
- 조항래, 「국채보상운동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 한국국학진흥원, 「성산이씨 홍와고택」(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목록집 2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 「慶北 高靈郡 國債報償會義捐金錄」
- 「高靈郡 斷煙會 義捐金 捧上日記冊」
- 「高靈郡斷煙義務會勘簿錄」
- 「斷煙償債廣告歌」
- 「斷煙償債會義捐金錄」 1
- 「斷煙償債會義捐金錄」 2
- 「斷煙會 各面 男口調査 成冊」
- 「弘窩文集」
- 『大韓每日申報』

Hongwa Lee Doo-hoon's Pogocheonhamo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Debt Compensation Movement in the Goryeung Region

Woo, Jin-wong

Hongwa Lee Doo-hoon was a leading Confucian scholar in the Goryeung region. He expressed a sense of resistance to Japan in the midst of chaotic time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He also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regain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foster future generations. This study briefly examined Lee Doo-hoon's life and learning focusing on the material contained in the literary collec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ogocheonhaemun(布告天下文)> among the data from Hongwa Lee Doo-hoon's descendants. Lee Doo-hoon was also the head of the Goryeung region during National Debt Compensation Movement.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data on the National Debt Compensation Movement in Lee's family and organized the related materials in Goryeung region.

<Pogocheonhaemun> was sent by six scholars of Yeongnam in February 1896, focusing on Myunwoo Kwak Jong-seok. This article of Empress Myeongseong murder and other Japanese act for various missions in Seoul. A draft of the data was prepared by Lee Doo-hoon.

The government's compensation campaign began in 1907 with the intention of restoring sovereignty by paying back the 13 million won debt it introduced in Japan. It was a movement that started in Daegu and spread nationwide. The descendants of Lee Doo-hoon have more than 60 types of government bond compensation activities.

These data were also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2017. In particular, these data are of excellent value among the national debt compensation campaigns carried by the nation. An appointment letter, poetry and advertisement related to the government bond compensation movement, a petition, and a list of donations are all still in place.

This will give a detailed picture of people's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National Debt Compensation Movement.

key words :

Lee Doo-hoon, Hongwa, Pogocheonchenhamoon, The National Debt Compensation Movement, Daegu, Goryeung, World Heritage

